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추석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전법 기도 법회 및 교리 탐구, 송편 만들기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이 땅위에서
우리 모두 화목한 생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네

Many do not know that we are here in this world to live in harmony. Those who know this do not fight against each oth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불자들이 속았다 ; 불교계 분노 일으킨 이명박 정부 행보

대통령 후보 시절 : “종교편향 절대 없다” 공언 사찰에서 합장인사 하기도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불교계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해 국정을 이끌 분”이라는 시선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일부에서 종교차별의 우려도 있었지만, 잦은 불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내 종교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 “절대 종교편향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사찰에서 합장인사하는 모습도 종종 언론에 노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대표됐던, 이명박 서울시장을 기억하는 불교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특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에 유일하게 이명박 후보만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교세가 강한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한나라당의 후보자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종교편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불교계 주요종단 총무원장 스님과 가진 후보자 공청회에서 종교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후보는 “절대 종교차별은 없다.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간직한 불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12월 4일 불교신문 사장 선목스님과 가진 후보자 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

“후보의 종교와 종교관은 무엇이냐”는 선목스님의 질의에 “기독교다. 하지만 지도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가 갖고 있는 자비와 관용의 사상은 사회 통합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불교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불교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당선 후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기대는 높았다. 지난 1월 본지가 전국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에게 당선인에게 바라는 바를 물었다. “종교간 평등원칙 반드시 지켜주길”(주경스님 / 서산 부석사 주지), “서민경제 살피는 대통령 됐으면…”(일지스님 / 인천불교회관 주지), “문화스포츠 ‘중요’ 문화 대통령 되길”(김홍국 / 가수), “흔들리는 입시제도 바로세우는 정책 필요”(최소아 / 천안 한암사 어린이지도교사), “국민 뜻 반영하는 국정 운영을 염원”(김정현 / 대불련 회장).

이명박 후보는 불교계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연등 축제 국가적 육성 지원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추진 △불교전통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불교관련 법규개정안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당선인 기간까지 이어졌다. 1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헌화를 하며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를 씻어냈다. 당선 후 첫 불교계 방문자리였던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과 화합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지혜로운 이의 삶이란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하며,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전 <잡보장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우선 저부터 하심(下心)의 교훈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바른 길(正道)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가진 차담에서 “불교가 세계화되고 전통문화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불교계에 애정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 정부 주요요직에 소망교회 인맥 기용 ; 참여정부 5년 19건, 현정부 6개월 25건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종교 관련 우려가 불어지기 시작했다. 국내 종교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 당시만도 불교계와 인수위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불교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취임식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용과 봉황 등의 문양 대신 ‘태평소’를 상징물로 내걸면서 “봉황 문양을 없애는 것이 권위적이기 때문인가, 상상의 동물이라 터부시하는 기독교 논리인가”에 대한 일반인의 논쟁도 있었다.

또 “태평소 문양의 불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세간의 질문도 있었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구약성서 기드온의 문장을 상징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청와대 수석, 장관을 내정하면서 확대됐다. 소위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던, 소망교회 인맥이 대거 포진하고 심지어 목사가 수석에 임명됐다. 당시 불교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 명의 청와대 수석과 1 명의 대변인 가운데 절반인 4 명이 기독교 신자로 확인됐으며, 불자 1 명, 무교가 3 명”이었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전에 비해 10 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난 22 일 전했다. 특히 지난 7 월에는 뉴라이트에서 활동하던 목사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는 등 종교편향을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관련 인사는 지속됐다. 종교편향의 사례가 부각된 것은 6 월 국토해양부가 제공한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인 ‘알고가’에 사찰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동네 교회까지도 지도에 나타나는데 왜 불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사찰조차도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냐는 불만이 강하게 토로됐다. 이어 공립 경기여고에서 석탑을 운동장에 묻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연이어 경찰청 복음화단식수련회 참가 포스터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얼굴이 실리면서 “정치인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성토했던 목소리가 커져갔다.

‘알고가’를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교육부의 정보지도에서도 사찰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 또 해당 전자지도를 만든 업체 총괄부사장이 인수위에 참가했던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은 ‘의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와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한승수 총리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더 이상의 종교편향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여수시장은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한달 후 교계에 알려졌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조계종을 찾은지 불과 1 주일 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내하던” 불교계에게 치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조계사를 나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차량을 막아선 경찰이 “총무원장 차량이면 더욱 철저히 검문해야 한다”며 신분증 요구에 이어 트렁크까지 열도록 한 것이다.

한 불교계 인사는 “마치 대통령을 향해 ‘내가 더 충실한 개신교인이다’고 알리려는 듯 앞장서 불교편향과 노골적인 개신교 지원을 자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불교는 상생의 종교다. 신라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대표되는 화합과 양보의 미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5 년간 19 건의 종교편향이 발생한 반면 이 대통령 취임후 6 개월 사이 25 건의 종교편향이 발생했다. 불교는 “큰 허물을 보고도 모른체 하는” 어리석은 종교는 절대 아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범불교도대회 “상생화합의 지혜...” 발원문 (전문)

은 누리에 항상 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은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께서 위법망구(爲法忘軀) 이어온

2500 년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욱되게 하고,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마음으로 밝혀온 한국불교가 능멸당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 하옵니다.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쌓아온 종교화합과 평화가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처님 전에 고하며

이를 방관한 우리의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 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남의 허물은 보되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교회는 보되 법당과 성당과 교당은 보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위정자들을 오늘 이 땅의 지도자로 만든

저희들의 공업을 머리 숙여 참회 하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모든 생명 평화를 마음에서 찾고 다툼을 싫어하며 대립과 갈등보다 화합과 통합을 염원하니

불처럼 뜨겁지만 눈처럼 냉정하게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관용하여

상생화합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부대중이 종교화합과 평화를 위한 법석의 인연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세운 3.1 운동 선열들의 마음에 당기를 원하오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몸으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보살이 되게 하시고
파사현정의 길이 호법신장 금강역사임을 깨닫도록 눈푸른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저희들의 염원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민족정기와 종교평화를 깨뜨리는 위정자들의 성찰과 각성으로 이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생명과 평화의 근원으로 귀의하는

수행과 성찰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52(단기 4341)년 8 월 27 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진명스님

20 만 불자 한마음 한뜻...佛法수호 의지 '활활'

8 · 27 범불교도대회의 이모저모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20 여만 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됐다. 지난 27 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는 각지에서 참여한 동참자들로 넘쳐났다. 전국서 2000 여대가 넘는 버스를 타고 상경한 불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헌법준수와 종교차별 종식”을 촉구했다. 사상 유례없이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범불교도대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열일 제치고 대회 동참 쟁걸음

○...많은 조계종 교구본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집결지로 삼아 서울 시청광장으로 향했다. 충남 공주 마곡사 말사에서 출발한 버스는 안성휴게소에서 모여 불법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대전 비래사 신도 맹연영(60)씨는 “열일 제치고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왔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회장 인근 버스물결 출렁

○...서울시청 인근은 범불교도대회 시작 1 시간 전부터 버스물결로 휩싸였다. 지방에서 올라온 버스마다 이명박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여름휴가를 지나 관광비수기에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서울 한복판에 혼잡한 도로에 정체된 밀리는 와중에도 표정은 싱글벙글.

덕수궁 앞 대로변에서는 경찰이 일부 차량을 ‘방패’로 삼아 법회 참가자들이 밀려나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뒤늦게 호법단 스님들의 ‘질책’을 받고 차를 빼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지방에서 시간 맞춰 상경한 다수의 버스는 교통란으로 남산터널 입구에서 아예 정체하는 등 서울은 버스물결로 넘실댔다.

호법단, 질서유지에 만전 기해

○...8.27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평화적인 대회진행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교역직 종무원 등 스님 100 여명과 포교사단 500 여명 등 사부대중 600 여명으로 구성된 ‘호법단’을 구성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이들은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지난 8 월 27 일 오전부터 조계사, 서울광장 등 서울시청 일원에서 ‘호법’이란 문구를 세긴 노란색 띠를 두르고 행진대열 안내, 질서유지, 안전사고예방 및 외부단체와 충돌방지 활동 등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깨우침의 소리’...전국서 울려

○...27 일 오후 2 시를 기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범종 타종의식이 진행됐다. 이날 부산 범어사에서 33 번의 타종의식을 갖고 정부의 종교편향을 종식하려는 의지를 지역 불자들에게 알린 것을 비롯해 경남 양산 통도사, 충남 예산 수덕사, 전남 장성 백양사,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에서 범종이 타종됐다. 불교에서 아침.저녁 예불시간

이외에 타종의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새해맞이 타종 이외에는 범종을 울리지 않는다. 이날 범종을 울린 것은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인터넷 매체들 현장 생중계

○…범불교도대회는 인터넷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장 화면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대회를 지켜본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온라인으로 적극 참여했다. 행사 시작후 2시간여 만에 2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의견이 올라와 이번 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댓글의 대부분은 불교계와 범불교도 대회를 지지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종교 차별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스님들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스님들이 이 무슨 고생이나” “대단한 한국불교다” “경상도에서도 대회 한번 하자”는 등 댓글은 지지 일변도였다.

도로정체에 지방참석자 발동동

○…오전 일찍부터 서울 조계사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중앙승가대 학인스님을 비롯해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해 집결한 참가자들은 시시각각 조계사에 도착했다. 이날 경찰은 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주변을 비롯해 우정국로, 안국동 로타리, 종각 사거리, 광화문 등 조계사와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회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아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상경한 스님과 불자들이 대회가 끝나도록 길위에 머물러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범패 타악공연 등 행사 ‘풍성’

○…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열린 다양한 식전행사는 대회 참가자들의 정법수호 의지를 북돋우는 데 일조했다. 본대회를 2시간 앞둔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는 공직자들의 잇따른 종교편향행위와 이번 대회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 범패 및 타악 공연과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종교편향에 대한 현 정부의 참회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바라는 서원지 쓰기 등 대중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광장 전광판서 실시간 보도

○…20만명이 모인 이날 범불교도대회는 서울광장 불교신문 전광판으로 생중계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청 오른편 효덕빌딩 12층 옥상에 설치된 가로 10m 세로 8m 크기의 전광판은 대회의 이모저모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종교편향 불식을 향한 불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불교신문은 호의를 발행해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범불교도대회의 당위성을 알렸다. 불교신문 호의에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들의 종교편향행위에 관한 그간의 보도내용, 종교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불교계 활동일지 등이 실렸다.

제주 사부대중 150여명도 동참

○…8.27 범불교도대회에 제 23 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원종스님)를 비롯한 제주 지역 사찰과 불자들도 동참했다. 스님 50명을 포함한 사부대중 150여명은 범불교도대회 하루 전인 26일 오전 10시에 비행기로 김포공항으로 이동, 서울 도선사, 남양주 봉선사 등을 순례했다. 이어 제주 지역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범불교도대회에 동참했다. 고정태 관음사 사무장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불교연합회를 구성해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며 “제주 지역 불자들이 거리상 제약이 많지만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길 막힌 도로 위서 TV보며 동참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버스들이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서울시청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 전주 장주사, 보천사 신도 등이 탑승한 한 관광버스는 전북 전주에서 오전 9시 출발했지만, 한남대교부터 길이 막히는 바람에 발을 굴러야 했다. 법회가 시작된 오후 2시에는 남산터널을 막 지날 때, 신도들은 불교텔레비전을 틀어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합장을 하고 법회에 동참했다. 버스안에서 법회를 봤다는 한 노보살은 “농번기라 일손이 바쁘지만, 열일을 제쳐두고 법회에 참석했다”며 “시골의 노인들마저 현 정부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2455 호/

“사찰과 인연 맺고 종교생활 하는 것 중요”

“재가불자 법회 불참…자기모순”신규탁 연세대학교수 제 9 차 월요포럼서 주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는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근원적 물음이다. 특히 세속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재가불자들에게는 절실하지만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재가불자들의 수행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1 일 (사)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제 9 차 월요포럼에서 ‘재가불교 철학을 위한 시도적 논의’란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경우 재가불자에 대한 전통도 없고, 경전문헌에 뚜렷하게 정립된 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최근 서적의 보급과 교육의 개방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가불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탁 교수는 먼저 재가불자에 대해 ‘종단에 소속돼 있는 사찰에서 수계절차를 밟고 주기적으로 계율을 점검하는 종교행위를 하는 불자’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형편에 맞게 10 악을 참회하며 10 선을 닦고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재가불자임을 자부하면서 법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올바른 수행방법에 대해서도 ‘부처님, 불경의 말씀, 승단을 믿는 바른 믿음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을 실천하는 바른 실천’이라고 규정하고 “바른 믿음이 없는 실천은 세속의 사회봉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믿음이 없는 참여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 믿음이란 진여와 불법승, 삼보를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가불자는 교리적으로 출가불자가 생활하는 사찰에 소속되지 않은 자체만의 별도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만큼 ‘남묘호렌계교’를 암송하는 창가학회 SGI 는 전통불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단체라고 무가치 또는 불법(不法)이 아니지만 이를 대승의 불자단체라고 한다면 사이비(似而非) 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가불자는 출가불자가 거주하는 사찰과 관련을 맺고 그곳에서 행하는 법회에 직접 동참하는 종교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시시각각]

국화빵 장수 어머니의 기도

2008 년 8 월 31 일 중앙일보 사설에서 발췌 (김진 논설위원)

“종교는 여러 가지 색종이로 만든 등 안에 있는 촛불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색깔로 등불을 보지만 그 촛불은 항상 안에 있다.”

초대 이집트 대통령 나기브(1901~84)는 이렇게 말했다. 촛불은 변함없이 타고 있는데 등불 바깥에선 사랑과 자비가 부닥치고 있다. 부처와 예수는 산사(山寺)와 청와대의 층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 최초의 장로 대통령은 YS(김영삼)다. 1987 년 대선 때 YS 는 주일(主日)이라며 일요일엔 유세를 하지 않았다. 많은 불자(佛子)가 그를 외면했고 YS 는 비(非)기독교 표밭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YS 에게 이 일은 뼈저린 교훈이었다. 5 년 뒤인 92 년 대선 때 YS 는 큰스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로 대통령 YS 는 불교계의 민감한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청와대 경내엔 불상이 하나 있다. 대통령 관저 뒤편 북악산 오르는 길 언덕에 있다. 불상은 원래 경주 부자집 정원에 있었는데 일제 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이 마음에 들어하자 부자가 총독관저에 기증한 것이다. YS 가 대통령이 되자 이 불상이 훼손됐거나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YS 는 일부러 신문·TV 기자와 함께 불상을 직접 찾았다.

YS 는 매주 일요일 아침 목사를 초청해 관저 식당에서 가족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자신이 장로로 있는 강남 충현교회 목사를 초청했는데 바깥의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 YS 는 다양화로 바꾸었다. 자신은 장로교지만 교파를 초월했고, 지역도 광주·전북·제주 등 전국을 망라해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들을 불렀다. 예배에 참석했던 측근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집권 내내 불교계의 시선은 까다로웠다. 주기적으로 “청와대 불상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95 년 봄 청와대 내에 처음으로 불교신자 모임인 청불회가 만들어졌다. 초대회장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은 오해를 막기 위해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불회는 불교계 지도자 100 여 명을 초청해 청와대 불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예배를 드렸다. 10 년 만에 다시 장로 대통령이 들어섰다. 일요일 유세를 포기했던 YS 만큼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가 불안해 할 소지를 안고 있다. 2004 년 5 월 그는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은 보이지 않게 드러진

무릎기도”라고 했으며 대선후보 때는 “이번 대선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불교계가 지목하는 종교 편향 사례 중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책임이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 대통령과 상관없이 정권 곳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취임 전에 ‘이명박 종교 논란’이 있었으므로 대통령은 불심(佛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이 대통령은 지인들에게 “내가 포항 달동네와 이태원 판자촌에 살면서도 비뚤어지거나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촌부였다.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하곤 했다. “장사를 나가기 전 새벽 4시,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모두 깨워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독특했어요. 나라와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기도한 뒤에 일가친척의 안녕을 빌었어요. 그 다음 동네 이웃의 행복을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 형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국화빵 장수 어머니의 첫 번째 기도는 상득·명박을 위한 간구(懇求)가 아니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한 중보(仲保)였다.

인간 이명박의 종교는 기독교지만 대통령의 종교는 국가여야 하지 않을까. 새벽엔 책상에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대낮엔 종교를 초월하면, 대통령은 종교갈등에 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러면 어느 종교도 “수배자 해제” 같은 초법적인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정치화하는 기독교내 뉴라이트가 문제”

‘종교 대화’ 릴레이 인터뷰 ① 불교도대회 연단 오른 김광준 성공회 신부

8월 31일 중앙선데이 사회면 기사에서 발췌 (권석천 기자)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시비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종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 SUNDAY는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교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그 첫 순서로 27일 ‘헌법 파괴·종교 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장 자격으로 연대사를 했던 대한성공회 김광준(52·사진) 신부와 만났다. 다음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와 인터뷰 약속이 잡혀있다. 서울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28일 오후 김광준 신부를 만나기 위해 시청 건너편의 정동 성공회 성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목 부분을 흰 띠로 두른 ‘로만 칼라’를 입은 신부가 회색 법복 차림의 스님들 사이에 섰던 전날 광경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불자 수만 명이 운집한 광장의 연단 위에 오른 걸까. 성공회 교무원장실 문을 열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교도대회에 참가한 연유부터 물었다.

김 신부는 최근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산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장경동 목사 얘기로 말을 풀어나갔다.

“종교 편향 문제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불교인들에게 사과의 마음과 이해를 전하는 것이 예의라고 봤습니다. 불교계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다들 부담스러우니까 피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계의 ‘종교 차별’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말대로 공무원 개인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의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됐다면 정부가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섰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면이라면.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얘기가 나오고 기독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어요. 정부가 빨리 오해를 불식시켰어야 해요. 정부 전자지도에서 사찰만 빠진 것이 실수였다면 그 한 번에서 그쳐야지 두 번, 세 번 이어지고... 편향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신부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원래 굉장히 유한 분인데, 강경해지셨다”며 “종교 지도자 차를 트렁크까지 열게 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불심(佛心)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의례적으로 총리나 장관이 조계사를 예방하고,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김 신부의 말은 주저함이나 막힘이 없었다. 기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설화법을 구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일신관을 가진 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도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못박았다. “그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불교계는 인내하고 참고 넘어갔어요. 기독교가 2년 전 부산에서 ‘사찰이 무너지게 해 달라’는 기도회를 갖는 등 종교 갈등을 일으킬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장 목사 발언에 관해선 “같은 종교인끼리의 집회인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요.

“유일신 종교라고 해서 자기 믿음만 강조하면 모든 걸 적대시해야 해요. 사람들 편 가르고 차별하고 싸우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신앙을 남에게 강요해선 안 됩니다.”

불교도대회가 끝난 뒤 김 신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왜 스님들과 합장을 했느냐”는 지적이었다. 김 신부는 “손을 모으는 것은 기독교든, 불교든 기도하는 자세일 뿐”이라며 “사회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까지 종교 행위로 해석하는 태도가 오해를 키운다”고 말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의 갈등에서 핵심은 뉴라이트입니다. 그 핵은 기독교 우파지요.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김 신부는 “큰 명분 없이 세력 확장과 주도권 획득에 주력하는 뉴라이트의 현실 참여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기독교 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KNCC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뉴라이트의 대립 연장선 위에 있다.

-김 신부께서 몸담은 KNCC도 사회 참여를 해오지 않았나요.

“KNCC가 주력한 것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요. 하지만 뉴라이트의 노선은 시장경제, 다시 말해 가진 자를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좌경화돼 왔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제 균형을 잡는 작업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굳이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 신부는 그러나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기독교 사회 책임의 서경석 목사 등이 26일 성명을 통해 “기독교가 반성함으로써 종교 간 화평과 관용의 길을 열어가자”고 밝힌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이 없었던 것은 타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서로 무관심했어요. 최근의 종교 간 갈등 조짐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부터 폐쇄적인 태도를 접고 마음을 열면 종교 화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물었다.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불교는 한다면 하더군요. 앞뒤를 재거나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자기 고집을 꺾고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9월 14일은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불국사에서 추석 기도는 첫째주 일요일에, 송편만들기는 3째주 일요일에 있겠습니다. .
- 양력 8월 10일날 백중 천도 기도 (우란분절)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선망부모, 일가친척, 수자령 영가님등 인연있는 41 위 영가님들을 모시고 천도기도를 경건한 마음으로 마쳤습니다. 이미국에서 동참하신 영가 기도 동참금은 \$2,000 불과 백중 상차림 공양금 \$150 불이고 꽃값 및 과일값등 상차림에 사용된 비용은 총 \$179.74 불 입니다. 비용을 제외한 백중기도 동참금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월 셋째주 일요일 (10월 19일)에는 불국사 가을 소풍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Alton 에 있는 Eckert's Farm 에서 Fuji (부사) 사과도 따고 경치 좋은 곳에서 점심 공양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 하겠습니다.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21 번 무오생 신영아, 517 번 갑자생 유제호, 518 번 임술생 유제선, 519 번 경자생 한정립, 520 번 신축생 차의준, 521 번 경오생 한주연, 522 번 임신생 한지훈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8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무오생 신영아, 이순화.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